

‘연말 호캉스’, 미리 예약하면 할인혜택에 선물은 ‘덤’

호텔업계 얼리버드 프로모션
사전예약 패키지 제품 붓물
케이크·와인·조식 등 제공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호텔업계가 겨울 시즌을 맞아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미리 예약하면 할인 혜택이나 추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은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본격 선보이며 연말·연초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만큼 겨울 ‘호캉스’(호텔+바캉스)를 계획한 고객들의 호응도 높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서울 코엑스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그니처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사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페어리 윈더랜드’ 패키지.



켄싱턴호텔 여의도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윈터컨티넨탈’ 패키지.

전 결제 시 선착순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11~12월 숙박에 한해 진행된다. 25일까지 사전 예약하면 20% 할인이 적용되며, 26일부터 30일까지 예약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그니처 윈터 패키지는 서울 파르나스의 ‘윈터컨티넨탈 패키지’와 서울 코엑스의 ‘퍼터모어 패키지’로 구성됐다. 모든 윈터 패키지 이용 고객은 호텔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사우나 제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윈터컨티넨탈 패키지’는 호텔만의 시그니처 서비스를 경험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콘셉트다.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DIY 시그니처 핫초코(커피나

티로 대체 가능) 2잔을 즐길 수 있으며, 호텔 시그니처 담요가 선물로 제공된다. 또 그랜드 키친에서의 2인 조식과 무료 베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퍼터모어 패키지’는 환경을 고려하는 ‘비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에코 퍼가방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를 즐길 수 있는 브레서리 2인 조식 뷔페가 혜택에 포함됐다.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크리스마스 무드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예약하는 고객에게 1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패키지는 내년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패키지 고객에게는 프랑스 크리스마스 전통 케이크로 알려진 ‘부쉬 드 노엘(buche de noel)’을 특별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객실 내 파티를 즐길 수 있

도록 케이크와 어울리는 와인을 함께 제공한다. 이그제큐티브 객실 1박과 라운지 혜택 2인(조식, 애프터눈 티타임, 해피아워)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겨울 패키지의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경우 10% 할인과 오후 3시 체크아웃이 제공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 내년 2월 28일까지 선보이는 겨울 패키지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한다. 이번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노보텔 강남에서 단독 제작한 어린왕자 아트랩을 포함한 다양한 어린왕자 웰컴 기프트, 호텔 레스토랑 20% 할인, 체크아웃 시 제공되는 서프라이즈 선물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동화 ‘엘리스’를 콘셉트로 한 ‘페어리 윈더랜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3일까지 예약하고, 해당 기간 내에 투숙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예약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페어리 윈더랜드’ 패키지에는 동화에 등장하는 시계, 토끼, 열쇠 등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엘리스 캐릭터 쿠키와 함께 티백 박스를 제공한다. 웨스틴 애프터눈 티 트레이와 엘리스 티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또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이용 가능한 고메 윈더랜드 바우처를 제공한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패키지 하나로 호텔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년 31일까지 선보인다. 얼리 윈터 프로모션으로 사전 예약할 경우, 1박당 최대 15% 할인 혜택과 10만 원 상당의 디럭스 풀사이드 뷰 객실 업그레이드가 제공된다.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패키지 하나로 추가 비용 없이 다이닝, 파티, 액티비티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식, 중식, 석식 등 3회의 올데이 다이닝을 제공하며, 뷔페는 물론이고 룸서비스와 브런치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라이브 콘서트 언더 뷰’ 등 각종 파티와 호텔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빈폴스포츠 “트와이스가 입은 다운자켓 할인”

25일까지 ‘트와이스 워크’ 진행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스포츠(Be anpole Sport)’가 오는 25일까지 겨울 다운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트와이스 워크(Twice Weeks)’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빈폴스포츠는 지난 8월 론칭 이후 보내 온 고객들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별 할인 주간인 ‘트와이스 워크’를 준비했다. 빈폴스포츠의 ‘트와이스 워크’는 걸그룹 트와이스가 착용해 화제가 된 ‘트와이스 비벤치 다운’을 포함해 ‘경량다운 패딩 점퍼’, 트렌디한 실루엣의 ‘쳐비 푸퍼 다운(Chubby Puffer Down)’, ‘프리



미엄 다운(Premium Down)’ 등 올가을겨울 시즌 다운 전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다.

또, 빈폴스포츠는 ‘트와이스 워크’ 기간 동안 이번 가을겨울 시즌 다운 상품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빈폴스포츠 스마트 폰 터치 니트 글로브’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김민서 기자

“레이스 활약, 불스원 ‘G-테크’가 한 몫”

인터뷰
류시원 레이서 겸 팀106 감독

고속 주행에 적합해 만족스러워
1년간 사용... 내년에도 함께 할 것

레이서로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류시원 ‘팀106’ 감독 겸 선수가 올해 레이싱 소감과 함께 ‘자동차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오일 ‘불스원 G-테크’의 품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류시원 감독은 최근 레디컬 컵 아시아에 출전해 9라운드 3위, 10라운드 우승을 하며 연속으로 수상대에 올랐다. 슈퍼레이스 캐달락 6000 클래스에서 3위에 오른 것 까지 포함하면 올해 트로피 3개를 거머쥔 셈이다.

류시원 감독은 “올해는 팀106에서 처음으로 원카 레이싱 체제로 운영했다”며 “혼자 시합을 하며 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드라이버, 팀, 차량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에는 운이 좀 따르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전에서 3위로 마무리하면서 올해 레이스는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시원 감독은 지난 1996년 연예인 최초로 카레이싱 자격증을 획득해 이듬해 1997년 프로데뷔를 했다. 2009년부터 ‘팀106’이라는 레이싱 팀을 만들어 감독 겸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팀106은 류시원의 생년월일인 10월6일을 의미한다.

그는 “팀106을 만

든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대기업의 후원이 없는 개인 팀이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됐다”고 전했다.

배우 류시원이 아닌 카레이서이자 레이싱 팀 감독 류시원으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연예인 카레이서라는 타이틀이 10년 넘게 있었지만 팀을 창단한 이후부터는 저를 카레이서로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레이싱을 할 때만큼은 연예인이 아닌 카레이서로서 시합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류시원 감독이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자동차의 혈액’ 엔진오일도 그 중 하나다.

류시원 감독은 “속도를 겨루는 레이싱카는 극한으로 달리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가 중요하다”며 “국내산 오일은 레이싱카에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불스원 G-테크 오일은 기존 외국 오일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고 했다.

불스원은 지난 류시원 감독의 ‘팀106’과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 G-테크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G-테크는 고속주행에 최적화된

‘0W-40 하이 퍼포먼스’, 연비 향상 효과를 극대화한 ‘5W-20 퓨얼 퍼포먼스’, 도심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5W-30 멀티 퍼포먼스’ 3종으로 국내 도로환경, 다양한 차종 특성 등에 따라 특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게 특징이다.

팀 106은 협약 체결 이후 G-테크를 지원받아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스톡카 레이싱인 슈퍼 6000 클래스에 참가했다.

류시원 감독은 “내년에도 함께 하게 된다면 G-테크를 사용할 생각”이라며 “레이싱카가 고속주행을 견디고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류시원 감독은 카트레이싱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류시원 감독은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가 더 대중화되고 사랑 받게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K-콘텐츠 힘’ 대만 관광객 100만명 돌파

관광공사 사상 최대 기록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에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10년 전인 2008년 불과 32만 명 수준이었던 대만 방문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50만 명을 돌파했다.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83만 명, 2017년에는 92.5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중국, 일본에 이어 처음으로 TOP3에 진입,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연말에는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드라마와 K-Pop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아 아시아 한류의 발원지가 됐다. 최근에는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

닌 한식, 패션, 한국어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며 방한 관광으로까지 연결됐다. 아울러 2015년 한-대만 항공 협정 체결을 통한 항공편의 대폭 증가, 지방공항의 LCC 취항 증가, 크루즈 노선의 확대 등 다양한 교통편이 확대됐다.

이에 공사는 유관기관, 업계와 공동으로 2030 여성 세대 대상 쇼핑, 뷰티 등 트렌디한 콘텐츠의 홍보 강화 및 상품 개발, 한류콘텐츠와 스포츠관광 연계 방한 상품 판촉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사는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오는 22일에 입국하는 대만관광객 대상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3~26일 열리는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 ‘2018 타이베이국제여전(ITF)’에 대규모 한국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김민서 기자



사진/불스원